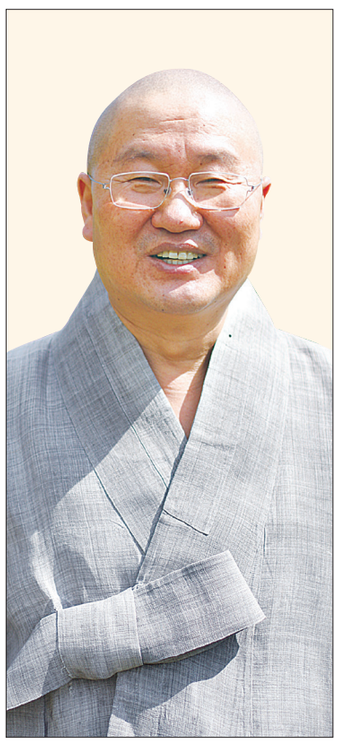
대전환, 찾아가는 불교

'찾아가는 불교' 제언 대담

시대 맞는 전법 · 포교행 절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대변화 속에서 불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불교계 안팎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욱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찾아가는 불교를 현장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능동적이면서, 대중적인 불교로의 변화에 대해 제언을 들어보았다.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된 대담에서는 조계종 前미래세대위원장인 심산 스님과 새로운 불교복지문화를 이끄는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 불교테인먼트를 주창한 신영섭 동국대 연극학부 교수, 승가 교육과 포교사회분야 연구를 진행 중인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편집자 주〉



심산 스님 홍법사 주지

찾아오는 불자 기다리면 안돼
지역사회 호흡하며 연계해야



정관 스님 종로노인복지관장

1인 다역 스님들만으론 한계
네트워크 활용, 사각 없애야



김응철 교수 중앙승가대

계층별 미디어 포교사 배출
스타 스님 · 재가자 발굴도



신영섭 교수 동국대

놀이문화, 참여콘텐츠 통해
'찾아오게 만드는 불교'로

Q 최근 '찾아가는 불교'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적극적이고 대중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이 같이 '찾아가는 불교'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산 스님: 지금까지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신심 깊은 불자들이 깊은 산속이든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저잣거리를 막론하고 사찰을 찾아 왔습니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불자들이 사찰로 찾아오는 것을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속에서 시민, 불자들이 사찰을 찾아올 여건이 되지 않으니, 지금까지 해온 불교계 활동이 수동적이 아니었는지 점검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대중들이 사찰을 찾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불교계는 멘붕에 빠진 것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만 보아도 대중들의 생활패턴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외식을 하고 쇼핑몰과 마트에 물건을 사러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새벽배송, 배달음식 등이 일상화 되었죠.

불교도 그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공동의 신행문화가 축소되고 개인 중심의 신행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체 순례가 중단되는 등 여파에 소규모 관계 중심으로 신도 커뮤니티도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김응철: 사찰과 지역 주민, 주요 포교대상인 청소년 및 청년층과 유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그동안 이들 계층이 사찰을 찾지 않고, 사찰에서도 적극적인 포교전략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매일 탁발을 하면서 포교 현장을 찾아 만나고 설법을 했습니다. 사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포교대상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효과적인 포교를 어렵게 할 뿐입니다.

신영섭: '찾아가는 불교'의 필요성은 동시대적 당위성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분야마다 다르지만 제가 전공한 연극학 측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와 코로나19로 탈종교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은 그동안 객체로 머물러 있던 개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불교'의 실체는 '동적인 불교', '신명나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입니다. '찾아가는 불교'는 불교중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즉 불교 혁신의 창조적인 파괴까지 의미합니다.

Q 불교계 내부적으로 불교 대중화, 생활화, 사회화 같은 담론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도, 불교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에는 미진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관 스님: 전통적으로 적극적인 포교활동에는 많은 부분 미약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경우 부흥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자들을 모으고 종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불교는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사회화를 위한 적극적인 액션 플랜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스님들의 숫자가 1만 2000여 명에 머물러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논의하고 다양한 전법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심산 스님: 불교 내부 문화정착에 머무른 점이 확산에 장애가 됐다고 봅니다.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사회화를 위해서는 스님들과 일반인들간의 접점이 늘어나고, 사찰이 가정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불교공동체가 지역사회와 연계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불교계 인식은 마치 사찰 바깥의 문화가 사찰 내부로 들어와 대중화, 사회화를 이끈다는 것에 반감까지 가졌던 것입니다. 먼저 스님들의 인식이 사회변화에 대해 조금은 더 민감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 사찰과 불교문화에 익숙한 신도층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신도 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김응철: 시민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불교의 대중화가 미흡했던 것은 대중들이 바라는 각 사회적 이슈에서 불교적 대안 제시가 크게 와 닿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생활화 부분은 마찬가지로 불교 교리가 일상생활과 괴리된 고담준론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 사안 발생 시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불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 이런 부분이 대중들에게 인식될 때 자연스럽게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등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Q 신명나는 동적인 불교로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찾아가는 불교'는 무엇일까요?

정관 스님: 각 지역 속 사찰을 중심으로 한 불교중흥을 위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 전법단 활동을 구축하며, 온 · 오프라인을 활용한 불교대중화 활동이 찾아가는 불교를 이끌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영섭: 저는 사고를 바꿔 '찾아가는 불교'는 역설적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불교'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불자대중 모두가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예술분야에서는 관객과 함께가 핵심적인 테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의 '엔터테이너'로서의 역할은 이성적 사유 대신에 신체와 미디어를 통해서 감각하고 지각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불교 사부대중은 다른 종교와 달리 모두가 '주체'입니다. 이러한 수평적 관계성은 개인이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 동시대적 니즈에 부합합니다.

Q 코로나19 상황은 불교가 더욱 '찾아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어지간한 대형 도심 사찰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뉴미디어 포교 · 전법에 열심입니다. 현재 불교계의 뉴미디어 포교 · 전법 활동에 대해 평가해주신다면요?

정관 스님: 아직까지는 미진하다고 평가합니다. 불교 신도 연령대를 살펴봤을 때, 노보살님들의 불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이분들이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각 사찰에서는 젊은 신도를 활용한 노보살들의 스마트폰 1:1 교육 등을 접목하여 실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면서 온 · 오프라인을 접목하고 강화했으면 합니다.

심산 스님: 지금은 평가를 떠나서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뉴미디어 포교와 전법에는 무조건 긍정적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활동에는 양날이 존재하고 특히 종교계에서는 부정적 영향도 있긴 하지만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직접해보지 않고서는 섣불리 이야기 할 수 없죠. 정관 스님 말씀처럼 사찰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름의 활용방안을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교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셨는데, 만약 이런 코로나 시대에 부처님이 계셨다면 유튜브를 하셨을까 안하셨을까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신영섭: '찾아오게 만드는 불교'로 최종적으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 전법 · 포교가 필수라고 봅니다.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뉴미디어의 핵심은 이미지와 이미지를 상호공유하며 소통하는 놀이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뉴미디어 전법 · 포교는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매개하는 플랫폼 기능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이미지와 놀이성(유희성)을 전제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지각, 감각의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스스로 창출하는 문화적 형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새로운 인연 맺기가 가능한 '찾아가는 불교'의 최적의 실천방안일 것입니다.

김응철: 활발하게 접근하고 있으나 아직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콘텐츠가 대중성이 없고, 사찰의 고유한 문화를 보여주는데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스타성이 있는 스님이나 재가불자들을 발굴하고, 시대에 부합하는 적절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온 국민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합니다"



불기2565(2021)년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 현지사

초대교조 광명 만덕 큰스님
2대 교조 자재 만현 큰스님

장로원의장 성광 교정원장 일도
포교원장 행원 교육원장 대원
감찰원장 범행 불교대학장 일도

춘천본사 주지 대원 제주제2본산주지 범행
부산분원 주지 보문 대전분원 주지 행원
고성분원 주지 성범 대구분원 주지 정대
김해분원 주지 성광 일본분원 주지 성도

영산불교 현지사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 제주제2본산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15층,14층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향길 7 ☎ 033-681-5515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9길 20 ☎ 053-654-5557
• 김해분원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739-157 ☎ 055-327-0055
• 일본분원 일본 야마구치켄 이와쿠니시 오츠죠 3-3-10 ☎ 81-827-31-161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